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여수 유치 본격 '시동'

전남·경남 지자체 12곳, 민간단체 공동 대응
전담팀 22명 구성…다음달 여수서 첫 회의

전남과 경남 지방자치단체 12곳과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2022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여수 유치에 나선다. COP는 세계 197개국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COP 여수 유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시민사회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전담(TF)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TF팀은 박봉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을 팀장으로, 전남도와 경남도를 비롯해 전남 동부권의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구례군과 경남 서부권의 진주시·사천시·하동군·남해군·산청군 등 2개 광역자치단체, 10개 기초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참여해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TF팀 다음달 8일 여수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어 COP 여수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과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한다. TF팀은 여수 유치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계획 확정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활동을 벌인다.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전남·경남 관계자들은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2주간 열리는 2019 칠레 산티아고 COP 현장을 방문해 유치활동을 펼 계획이다.

COP 여수 유치가 국가계획으로 확정되면 유치위원회를 별도의 상설기구로 확대해 한층 구체적이고 치밀한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여수를 마이스(MICE) 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여수박람회장 사후 활용 차원에서도 COP 여수 유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는 대륙별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오는 2022년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된다. 회의 유치는 개최 2년 전 유치 의사 표명을 하면 대륙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COP가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박봉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경남과 전남의 COP 공동 유치는 양 지역의 공동 발전과 영호남 교류의 교두보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방안 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최근 2022년 COP 개최지를 대한민국 남해안 남중권으로 공동 유치하기 위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2017년 4월 전남·경남 시민사회단체는 COP 여수 유치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2018년 9월에는 김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COP 유치 워크숍을 개최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FINA(국제수영연맹) 대표단이 26일 오전 대회가 열리는 광주 남부대학교 수영장을 찾아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FINA 대표단 "광주수영대회 시설·준비상황 '베리 굿'"

광주 방문 현장점검…코넬 사무총장 "북 참가 확신"

국제수영연맹(이하 FINA) 대표단이 2019 광주국제수영선수권대회 경기시설 및 대회준비 상황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26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FINA 코넬 마르쿨레스쿠 사무총장을 비롯한 와킨푸욜 시설위원장 등 대표단 6명이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했다.

FINA는 그동안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광주를 수차례 방문했으며, 지난 25일 조직위를 방문해 경기장 시설분야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다. 또 경기장 시설의 5개 분야, 30여개 세부사항의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협의했다.

26일에는 대회 주경기장인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염주체육관 등을 방문해 경기장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경기장 내에서 선수들의 동선 체크, 방송 카메라의 위치 선정 등 경기장 곳곳의 시설 프로그램에 대해 조언했다.

FINA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광주대회를 지금까지 개최한 어느 수영대회보다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며 세심한 점검과 함께 수송·숙박·인력관리 실무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코넬 마르쿨레스쿠 사무총장은 "그동안 북한이 FINA 대회에 불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참가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북한에 현재 진행중인 엔트리 등록 등 참가를 위한 요청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서포터즈 모집이 시작되는 등 대회 준비도 순조롭다. 광주시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서포터즈 1만명을 모집한다.

28일부터 3월28일까지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시, 자치구, 주민센터, 수영대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일반시민, 대학생, 직능단체, 시민단체, 기업체 등 시민서포터즈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서포터즈는 수영대회 홍보, 선수단 환영·환송, 관광안내 지원, 경기응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간 외교사절 역할을 한다.

김준영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광주세계수영대회는 올해 국내 유일의 국제대회이자 5대 메가 스포츠"라면서 "민간 외교사절로 성공 개최에 중심축이 될 서포터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카드 수수료 없는 '제로페이-전남' 시행

순천 아랫장 전통시장서 선포식
금융기관 등과 활성화 협약

전남도가 26일 순천 아랫장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전남'의 본격 시행을 선포했다. '제로페이'는 정부에서 주관해 개발·도입한 모바일 결제시스템이다. 소비자가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방식이다.

전남도는 '제로페이-전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가맹점 확보와 사용자 확대가 제로페이 성공의 관건인 만큼 이달부터 시군,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과 협업해 상반기 중으로 전체 가맹 대상의 30% 가입을 달성하고, 도내 이용자 확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시군별 밀집도와 이용도가 높은 상점가 및 전통시장을 제로페이 거점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공공서비스 할인행사와 각종 인센티브 등 유인책 개발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제로페이'가 시장에 정착되면 연간 매출액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전혀 없어 영업수익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자는 소득공제 40%와 공공시설 이용 시 다양한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서 전남도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은행, NH농협은행, 전남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제로페이-전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남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가맹 신청서 500개를 전남도에 전달하고, 순천 아랫장 전통시장을 '제로페이-전남 상생 전통시장'으로 지정, 현판 제막식도 진행했다.

전남지역 금융기관인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억 원 규모의 특별 출연도 약속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송정공원 사업자 공모

광주시는 26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지인 송정공원 제안 접수 공고를 내고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송정공원은 2단계 사업지 6개 공원 가운데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유일한 곳이다.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와 논의해 사업 수익성 등을 보완해 재공고했다.

시는 나머지 5개 공원 6개 지구(중앙1·중앙 2·중외·일곡·운암산·신용)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 소촌동 일대 송정공원은 공원 53만6천274㎡, 녹지 44만9천37㎡, 비공원시설 5만637㎡ 규모다. 4월 26일까지 제안서를 신청받고 제안심사위원회, 시민심사단 평가를 거쳐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중앙공원 1지구는 기존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스스로 반납하면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재평가 결과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바뀌었다.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 신용공원 산이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주요 혼잡도로·교차로 개선대책 마련

광주시가 관내 주요 혼잡도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도로 확장과 함께 우회광역도로와 지하차도 등이 건설되면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주요 도로구간과 교차로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관내 교통서비스수준이 F등급(A~FFF) 이상인 교통정체가 심각한 도로구간은 계수교차로~운수나들목 구간 등 8곳이며, 교차로는 광천사거리 등 30곳이다.

시는 우선 이들 혼잡도로와 교차로를 대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법정계획으로 추진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2020~2025년)' 용역에서 해당 구간과 교차로에 대한 개선방안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해당 도로와 교차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체 우회도로와 지하차도 건설, 도로 확장 등은 물론 인접 시·군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이 도심 특정구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우회 광역도로 개설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될 국토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2021~2025년)'에 사업 반영을 적극 건의해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기대안으로 비교적 적은 예산을 들여 기존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보완,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